

자 | 기 | 소 | 개



2022년 5월 25일

이 름: 김 윤 식(케냐선교사)

연 락 처: +254 716 376856 / africa92@naver.com

[사진설명]

김다은

(2022년 5월 케냐에서 고등학교 졸업,

8월 미국 대학 입학 예정)

김윤식(케냐선교사-케냐감리교회 본부 사역)

배경식(탄자니아선교사-룽기도 마사이 사역)

[학 력]

1998. 2. 한국외국어대학교 졸업 (전공: 스와힐리어, 부전공: 행정학)

2007. 2. 감리교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M. Div)

2017. 5. 미국 웨슬리신학대학교 목회학 박사(D. Min)

[경 력]

2008. 3. 28. 목사(선교사) 안수 (기독교대한감리회 중앙연회)

2008. 5 - 2011. 6. 탄자니아 선교사 (중앙연회 이천북지방 현방교회 파송, 담임 김기돈 목사)

2011. 7 - 2013. 3. 탄자니아 선교사 (서울연회 은평동지방 진관교회 파송, 담임 이현식 목사)

2013. 4. - 현재. 케냐 선교사 (서울연회 은평동지방 진관교회 파송, 담임 이현식 목사)

사 | 역 | 소 | 개

한국교회의 아프리카 선교는 1990년대 초반에 선교사들을 파송하며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이미 그 이전에도 선교사를 파송하기는 했지만, 소수에 불과했다. 2000년대를 맞이하면서 각 교단과 선교단체 그리고 NGO를 통해 단기 및 장기 선교사들이 파송되어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 사역하고 있다.

한국교회 파송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이미 아프리카 대륙에 속한 나라의 사람들은 유럽의 식민지 지배를 겪으면서 가톨릭과 개신교들로부터 전해진 복음을 들었다. 그렇기에 한국인 선교사가 전하는 복음에 그리 낯설지 않지만, 여전히 선교사가 필요한 나라들이다. 2008년 5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사역한 탄자니아연합공화국은 인구 약 30%가 기독교인(개신교인과 가톨릭교인 포함)이고, 현재 사역하고 있는 케냐공화국도 전체 인구 80%가 기독교인이다. 그러나 명목상의 기독교인이 대다수이며, 기독교인이라고 밝힌 인구 중에 12% 정도만 교회에 출석한다. 기독교 교리에 대해 잘 모르며 성경 지식도 부족하다. 이는 한국교회가 말하는 이단에 노출되기 쉽다는 것이며 또한 이슬람으로의 개종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이다, 독립 이후 또한 유럽 선교사들에 대한 모라토리엄 선언(케냐의 경우 동아프리카 장로교회가 대표적인 경우)으로 현지 지도자들에 대한 양육 없이 급속도로 외형만 커진 기독교는 명목상의 기독교인을 양산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토속종교와 혼합주의에 노출되어 있다.

□ 탄자니아에서의 선교 사역(2008년 5월부터 2013년 3월까지)

1. 아루샤 감리교 신학교

2008년 5월에 탄자니아 선교사로서 파송 받아 아루샤에 자리한 감리교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했다. 신학교 사역을 통하여 현지 교단에 필요한 현지인 목회자들을 배출했으며, 감리교의 신앙



바탕에서 자란 목회자 중에서 강사나 교수를 양성하는 과정 가운데 사역지를 떠나게 되었다.

이미 식민지 역사를 통해 많은 개신교 교단이 이미 자리 잡은 탄자니아에 또 하나의 교단인 감리교회를 탄자니아에 심는 것이 아니라, 감리교 신학교를 통하여 양성

된 좋은 믿음의 목회자들을 통하여 말씀으로 탄자니아의 교회를 개혁하고 탄자니아인을 회심하게 하고, 성서적 성결을 이 땅에 전파하려는 것을 신학교 모토로 삼고 사역을 5년간 하였다.

2. 순회 설교 및 교육

현장에서 목회를 하다 뒤늦게 배움의 길에 들어선 신학생들 대부분이었기에 방학이 되면 각자의 사역지로 돌아간다. 방학 중에는 인구 5천만에 한반도의 크기의 4.3배가 넘는 넓은 땅에서 신학교 신학생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들을 방문하여 목회자(신학생)를 격려하며 성도들을 대상으로 성경 세미나를 열어 복음을 전하였다.



3. 마사이 교회사역

배경식선교사가 사역하던 롱기도 지역의 마사이 목회자를 대상으로 성경 세미나를 그리고 성도들을 대상으로 연합부흥회를 인도하며 협력 사역을 하였다.

□ 케냐감리교회에서의 선교(2013년 4월부터 현재까지)

1. 감리교회의 선교 현황

케냐감리교회(Methodist Church in Kenya, MCK)는 선교사들과 기독교로 개종한 아프리카인들의 헌신 위에 세워진 교회이다. 1862년 영국의 The United Methodist Free Church가 몸바사의 리베(Ribe)라는 곳에서 교회를 개척하므로 케냐에 감리교회가 시작하였다.

선교사와 개종된 현지인들에 의해 시작된 케냐감리교회는 복음을 받아 들인지 50년이 되는 1967년에 자치를 시작했다. 케냐감리교회는 현재 1300여개의 교회와 케냐에 12개의 시노드(연회)와 400여명의 전임 목회자가 있는 큰 교단으로 성장했다. 영국감리교회의 영향으로 기독교대한감리회처럼 회중교회가 아니라 CONNECTIONAL(연결/관계적) 교회로서의 형태이며 지방 감리사가 행정을 처리하면서 교회들을 돌보고 있으며 지방 순회 목회자와 평신도 설교자가 있어서 교회를 순회하며 주일예배 설교를 하고 있다.



2. 사역

① 케냐감리교회와의 선교 정책 협력 및 선교 협력이 필요한 교회 방문



2013년 케냐감리교회 6대 감독 회장의 임기가 시작되면서 선교하는 감리교회라는 케냐감리교회의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해 선교국이 강화되었다. 2013년 9월부터 케냐감리교회 본부에 상근하게 되면서부터 케냐감리교회와 기독교대한감리회 사이에서 선교 협력에 있어서 중간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교회를 비롯하여 선교하는 교회에게 선교지의 필요와 상황을 전하고 선교지가 필요로 하는 선교가 되도록 하는데 협력하고 있다. 케냐감리교회의 선교정책과 목회자 양성 등과 관련된 사역을 하면서 각 연회와 지방의 교회들을 방문하고 있다.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교회들의 케냐감리교회를 통하여 선교하는 지역과 프로젝트들을 관리하며 협력하고 있다.

② 현지 지도자(목회자와 평신도 설교자) 및 성도 양육

케냐 기독교 인구는 80% 이상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이들의 인구는 늘어나고 있으며, 말씀과 교리에 대한 부분이 약해 기독교와 전통 종교, 가치 그리고 신념 등이 혼합된 혼합주의 기독교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전통적 가치관에 바탕을 두고 성경을 해석하느냐와 성경적 가치관에 기초하여 전통적 가치나 문화를 해석하느냐에 따라 기독교인으로서 서로 다른 삶의 모습을 보인다.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 그리고 성도가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자신들의 전통적 가치나 문화를 해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경과 교리 교육 등을 통한 양육에 관심을 가지고 사역하고 있다.



③ 교회 건축 및 교회가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프로젝트 후원

현지 교단의 본부 사역을 하는 선교사로서 교회를 개척하기보다는 이전에 있던 교회들의 필요에 따라 예배당 건축을 한국교회와 연결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교회가 필요로 하는 프로젝트(성경세미나, 목회자 오토바이 구입, 여선교회 방앗간 운영, 방송 기자재 구입 등)들을 파악하고 후원하고 있다.



④ 청소년 집회 및 목회자와 성도 자녀 학비 후원 그리고 여자 청소년 보호 센터 사역

청소년들을 위해 말씀 집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여자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2022년 처음으로 세미나(여성할레)를 진행했다. 교회 재정이 충분하지 않은 지방으로 파송된 목회자의 자녀와 성도 가정 중에 학비 후원이 필요한 경우 지방회의 감리사와 상의한 후 후원자가 생기는 대로 후원을 하고 있다. 2019년 하반기부터 여성할레와 조혼을 피하고자 그리고 학업을 위해서 집에서 나와서 교회로 와서 지내는 포켓 아이들이 20-30여명이 있다. 기회가 닿는 대로 후원을 하고 있다.



3. 선교사로서의 생각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야 하며, 교회가 이 땅에 있어야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이다. 그동안 기독교대한감리회를 비롯한 한국교회가 이러한 사명에 충실하게 해왔던 것이 사실이고, 감사한 일임에는 분명하다.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에 한국교회를 통해 파송된 1세대 선교사들은 헌신적으로 선교지에 교회를 개척하고 건축하였다. 아쉬운 것 중의 하나는 선교 현지 교단과 깊은 유대 관계없이 선교사 개인이나 파송교회의 판단에 의한 교회 개척 및 건축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여전히 교회 개척과 건축은 선교지에 필요하다. 그러나 이제는 현지 교단이나 교회 또는 성도들의 필요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에 선교사들이 동역자로서 협력해야 하는 시기임을 인정하고 새로운 협력 모델의 선교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선교사의 역할은 선교 현장의 필요에 소홀히 하고 자신이나 후원교회가 원하는 것을 심는 것이 아니라, 후원교회와 선교 현장의 교회가 서로 소통하게 하고, 의지가 있는 현지교회들이 성숙의 강을 건널 수 있는 디딤돌이 되는 것이다.

선교사로서 준비하면서 스스로 2세대 선교사로 정의했고, 또한 2008년 5월 탄자니아 선교사로 파송받으면서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케냐 선교사의 삶을 살면서도 “나는 2세대 선교사이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한다. 즉, 이제는 현지교회의 필요를 살피고, 선교 현장의 이야기를 감동이 아닌 사실적으로 파송교회와 후원교회에 알려서 서로 이해하게 해서, 선교 현장의 필요에 응답하게 하는 선교의 모델을 만드는 도구가 되고자 한다. 그래서 선교사로서 파송교회나 후원교회의 선교기지를 세우기보다는 현지 교단과 협력하면서 그들의 연약한 부분을 동역자로서 채우고 또한 배워가고자 한다. 이 일을 위해서는 또한 좋은 믿음의 현지인 목회자 양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선교 현장의 필요는 선교사가 아닌 현지 지도자들이 더 세밀하게 이해하고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이 현장의 필요를 채워가는 이들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진 **현지인 목회자와 성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프리카 땅에 다시 전해지며

듣는 이들의 삶 가운데 말씀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변화를 경험하는 일들이

아프리카 54개국 12억의 사람들에게 일어나기를 기도하며 기대하며 오늘도

선교지에서의 하루를 보낸다.